

교육청 스승찾기 시스템 개선 목소리

검색 현직 교원으로 한정... 퇴직 교사는 안돼

교권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 후 스승을 찾고 싶어도 퇴직한 교직원들은 검색할 수가 없어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스승찾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 은사를 찾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스승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재직 중인 교원들로 제한돼 있어 퇴직한 교원들의 정보는 교육청에서 검색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앞서 도교육청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고등학교 시절 은사를 검색한 이모(38)씨는 "30대 40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찾을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때 담임선생님은 이미 퇴직한 교원으로 찾을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씨는 "기억에 남아 생각나는 선생님들은 지금의 내가 있게 도와주신 분들인데 퇴직하시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학생인권에만 집중된 교육 현실이지만 퇴직한 은사님들도 현재 근무하고 교직원들처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

계자들이 조금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찾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들을 상대로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퇴직하신 분들의 정보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꼭 연락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인사기록상 마지막으로 재직하던 학교에 은사님의 연락처가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업 후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퇴직하신 은사를 찾을 수 없는 제자들은 엉뚱한 동기생들을 찾는 게시판으로 몰리고 있다.

'보고싶은 친구' 게시판에는 은사를 찾는 제자들이 글을 올리고 있었고 게시판 글을 통해 '선생님 어디 근무하시나요', '연락처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계십니까, 정말 보고싶습니다'라며 은사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해당 게시판에서 은사를 찾는 게시글은 지난해 17건, 올해 2월에도 1건이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 애타게 옛 은사를 찾던 제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글도 있었는데, 지난해 3월 25일 게시된 해당 글에는 자신이 제자가 찾는 은사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하며 연락처가 적혀있기도 했다.

/안진수 기자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 관리자가 "민주노총의 씨를 말리겠다"고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에 대한 사과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거리 택시요금 떼먹고 달아난 40대 구속

장거리 택시를 타고 상승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3시40분께 군산시내 한 도로에서 김모(63)씨의 택시를 타고 익산까지 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택시기사 강씨에게 광주까지 간다고 속여 택시에 탄 뒤 익산시에 들러 "핸드폰을 찾아야하니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해 강씨의 핸드폰까지 챙겨 달아난 혐의(책략 절도)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

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내가 관리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의상이 좋 많다", "땀을 사놓은 게 있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돈이 많은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떼먹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담노가 있어 일도 못하고 생활이 힘들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진수 기자

직장 동료 가방 훔친 우울증 50대 女 입건

우울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의 가방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12일 회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직장 동료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2분께 무주군 한 콘도 로비에 벤치에 놓인 직장 동료 A(64·여)씨의 가방(시가 65만원 상당)과 양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튿날 오전 5시50분께 같은 콘도 객실에 묵고 있는 B(60·여)씨의 방에 침입해 기능성 레싱스(시가 60만원 상당)를 입고 나가는 수법으로 훔쳐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박씨는 우울한 기분에 충동적으로 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횡단보도 건너던 학생 친 버스기사에 금고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버스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12일 주위의를 무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모 버스회사 운전자 C(42)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C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10분께 전주시내 한 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D(15)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로 충격,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7월부터 0-2세 대상

신생아부터 2세 사이의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48개월 미만 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과 구직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12시간 중 일반(7:30~19:30) 서비스가 지원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국제관광도시 '밈그림'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앞둔 전주시가 한옥마을 중심 관광에서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12일 관련 부서 공무원과 운영기관인 (사)한국관광제거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전주시 관광발전진흥계획 수립 연구'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관광산업 관련 종합 발전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이번 연구용역은 가족친화형과 시간소비형, 특화소비형 등 전주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관광현황과 여건 등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등 지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해왔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전주시 정책여건, 관광개발, 관광산업, 관광진흥(마케팅) 등 지문회의를 실시하고 관광객 설문 등을 통해 관광현황과 관광수요 및 수입분석을 추진했다.

/김영재 기자

도내 초혼 연령 약4세 상승

남 32.6세 · 여 29.4세로 2000년대비 각각 3.8세 · 3.7세 높아

전북도의 초혼 연령이 15년전(2000년)에 비해 약 4세 가량 상승함으로써 20대의 혼인 비중은 감소하고 30~40대의 혼인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 인구수는 지난 15년전에 비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전북도 주요 관심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전북인포그래픽스'를 올 5월부터 발간했다. 전북연구원이 13일 발간한 '전북인포그래픽스 1호'에 따르면 2015년 전북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2.6세, 여자는 29.4세로 2000년에 비해 각각 3.8세(2000년 남자 28.8세), 3.7세(2000년 여자 25.7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도내 20대 혼인 비중은 2015년 기준 2000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67.9%→36.8%)한 반면 30대의 혼인 비중은 2배가량 상승(22.4%→45.0%)했다.

/정영수 기자

40대의 혼인 비중도 2배 가량 증가(4.5%→10.8%)했다.

혼인 건수는 2015년 기준 15년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만 1,362의 혼인 건수는 2013년 부터 1만 건 미만 수준으로 떨어 2015년도 혼인 건수는 9천 건을 간신히 넘은 것(9,06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도내 혼인 형태는 초혼 감소(81.05%→74.56%), 재혼 증가(10.96%→14.32%)의 형태를 보이며 40대 이후의 재혼이 남녀 모두에게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50대~60대 재혼 비중은 급증해 50~60대 남편의 재혼은 31.5%p (18.5%→50.0%), 50~60대 아내의 재혼은 16.8%p(7.4%→24.2%) 증가했다. 재혼의 형태는 사별 후 재혼은 남녀 모두 감소한 반면 이혼 후 재혼은 남녀 모두 각각 7.7%p, 7.6%p 증가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